

이집트의 음주문화와 알코올문제 대책



조 성 기

(KODCAR 예방치료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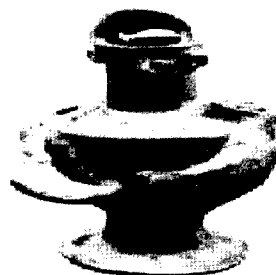
■ 目 次 ■

1. 독특한 이집트의 음주문화
2. '술' 이 '영원한 생명' 을 준다는 의미와 신념
3. 기원전에 있었던 이집트의 알코올 문제 예방활동
4. 로마의 침입에도 유지된 이집트의 종교와 음주문화
5. 기독교의 승리- 예수님께서 주류제조를 하셨는가?
6. 아랍 지배기의 음주와 주조 기술의 발전
7. 이집트인의 종교와 알코올 소비
8. 이집트의 음주문화와 맥주를 좋아하는 이집트인
9. 이집트인들의 다양한 음주패턴
10. 이집트에서 음주문제는 개인의 문제
11. 4천년 건전 음주 왕국 이집트의 미래

1. 독특한 이집트의 음주문화

“이집트!”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의 나라이자 회교국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술을 안 마실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그 상식은 틀린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술을 마신다. 최근 여행자들에게 물어보면 지방맥주가 3가지 종류이고, 다양한 수입맥주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와인도 판매는 하는데 대중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마시는 비인기 주종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집트인의 음주문화를 연구자들은 상당히 독특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음주패턴과 알코올 소비량이 4,000년 역사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이집트인들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기원전 10세기경의 이집트 술잔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문화가 근세기 들어 급격히 변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처럼 과음과 폭음을 일삼는 형태로 변화한 것은 사실 그 이전부터가 아니라 일제 때와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시절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일이다. 매사에 변화 없이 무엇인가가 유지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데 이집트인들의 음주문화가 불변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집트의 음주문화를 정의할 때 통상 사람들이 제기하는 가설은 문화와 종교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집트인의 종교와 문화가 그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면 이집트 음주문화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집트인의 음주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 특기할만한 점은 그들의 절대적인 음주량이 적다는 것이다. 알코올은 기나긴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음용이 가능했지만 술 소비량이나 개인 당 마시는 양은 항상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었다.

이집트인은 주로 곡물로 만든 맥주를 마셨다고 되어있다. 맥주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음식이자 음료였다는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술이 '중독성 물질'이라기 보다는 음식이라는 개념을 가졌던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각각의 술마다 마실 때를 다르게 한다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 즉, 와인류의 술은 축제일이나 가끔 마시는 것이었고, 증류주는 잘 마시지 않았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독한 술을 사악한 물질로 여기거나 기피대상 물질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약한 술을 주로 소비한다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술이 오히려 음식이나 음료수라는 개념이나

인식은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영국,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나 이집트 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 역사가 오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필자가 상하이의 품질경영 전문가학회에서 "중독(addiction)이라는 단어를 중국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물었을 때 지식층인 젊은 학자는 별반 생각 없이 "그거요? '탐닉(enjoyment)'으로 이해하지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알코올 문제 연구자로서는 놀랄만한 일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중독은 특수한 개인적 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2. 술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의미와 신념

이집트 역사가 다른 나라 역사와 달리 독보적인 것은 역사적 사실들이 신뢰할만하게 서류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7,000년의 역사가 거의 모두 다 입증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으니 말이다. 조각, 벽화, 파피루스 유품 등을 살펴보면 초기 이집트인의 삶을 아주 상세히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집트인의 생활 속에서 술이 차지하는 의미를 역사적으로 밝히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원전 3200년 이집트 왕조 설립 이전 시대의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가 영속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집트인들에게 사후세계는 사전세계와 마찬가지로였다.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들에게 산 자와 마찬가지로 음식과 술 등의 공물을 제공하였다. 사제가 신전에서 제례를 실행할 때 하루에 3번, 음식과 술과 의복 등을 바치었다. 이러한 방식



람세스 2세의 미이라, 3000년 전의 것으로 외국에 반출되었다가 카이로로 반송도중 '술에 취한 검사관'이 '건어 수입품'으로 오인하여 과세했다는 일화

의 매장 행위는 1대 왕조에서 4대 왕조를 거치는 기간 중에 점점 더 일반화되었다. 매장할 때 사용하기 위해 음식과 술을 비축한 특수 창고가 있었고, 장례식을 관장하는 신전도 별도로 건축되었다. 이는 이집트인들이 '죽은 자'를 '산 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술이 중요한 접신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종교는 왕과 국가를 위해서 조직되었는데, 법전도 왕을 위해 제정되었고 모든 문학작품도 왕에게 바쳐졌다. 왕 만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피라미드를 둘러싼 거대한 묘역에 노동과 공물을 바치는 자들은 마치 왕이 가지는 영속성을 자신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한 이유는 왕과 자신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서였다. 바로 술이 고대 이집

트인들에게 그러한 영속성을 가져다 주는 공물 중 하나였었다. 그러한 술을 함께 마실 수 있다는 자격의 상징인 술이 자신에게 영속적인 생명을 준다는 믿음을 주었던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음주 패턴은 이 같은 문화적 요소와 종교적 의식과도 일치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빵과 맥주를 생존의 기본요소로 여겼다. 그렇지만 와인이나 독한 증류주는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맥주와 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분명한 것은 맥주가 알코올 음료라기 보다는 하나의 음식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지금도 여전히 이집트인들의 생활 속에 남아있다. 빵과 맥주는 먹는 것으로나 바치는 것으로서 사회 문화적 행위의 초점이 되었다.

빵과 맥주는 매일 두 번씩 죽은 왕을 위한 신전에 바쳐졌고, 300명이 넘는 신전의 종사자들이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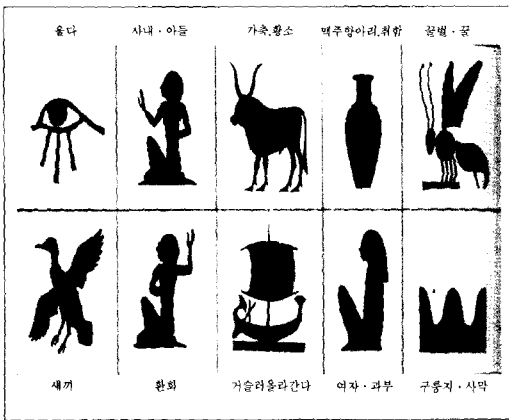


태양과 대지의 결실인 맥주 빛의 광경- 부장품

이집트 노동자들의 도시락은 빵, 맥주, 양파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어린이도 엄마도 모두 건강상의 이유나 영양상의 이유로 맥주를 마셨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주인이 손님을 맞으면서 하는 인사말도 "빵과 맥주(Bread and Beer)"였다. 이 말은 요즈음 "Hello!"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집트인들은 대부분 맥주를 적당

하게 사교적으로 마셨다. 물론 가끔 과음을 할 때도 있었다. 과음은 통상 사람이 죽은 후 40 일이나 70일 후 장례를 마친 마지막 날 발생하였다. 이날 한달치 음주량이 단 하루에 소모 되는 경우가 있었다. 시에서조차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한편 이집트에서도 맥주 집을 자주 가거나 맥주나 와인을 과음하는 것은 못마땅해 하거나 문제 있는 행동으로 낙인이 찍혔다. 맥주는 가정에서 양조되었고 공물로 바치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제조되기도 하였다. 이집트에서는 밀과 보리가 많이 경작되었고 풍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곡간이 가득 차 있었다. 빵은 양조과정에 부산물로서 만들어졌다. 이집트의 맥주는 진하고, 영양분도 많았으며 신선한 채로 마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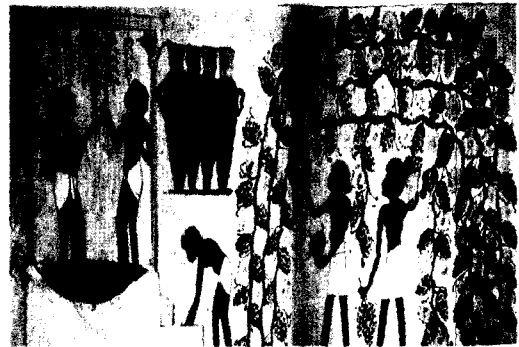


태양과 대지의 결실인 맥주 빛는 광경-부장품

맥주용기는 투과성 진흙으로 제조되어 맥주를 단기적으로 밖에 보관할 수 없었다. 지금 누비아(Nubia)지방이나 수단(Sudan)지방에 있는 보자(bouza)라는 맥주는 그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다. 와인과 리큐르 등은 무화과나 대추야자나 포도로 만들었다. 이집트의 와인은 증발하는 것을 막고, 여과과정의 손실을 줄이

려고 덜 숙성된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종교적 의식과 문화적 의식은 신에 대한 충성의 몸짓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을 위한 의무적인 행위, 자기만족, 친숙한 행동패턴 들이었다. 고대 왕조시대의 이집트인들은 통상 자신감이 넘쳤고, 일도 열심히 하였으며, 낙관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죽어서는 사후세계를 위해 필요한 음식물과 함께 묻혀졌고, 반드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집트인들의 맥주 사용법 이면에는 이러한 도덕률과 종교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귀족의 저택에서 포도를 따 와인을 만드는 장면

3.기원전에 있었던 이집트의 알코올 문제 예방활동

B.C. 2350년로 부터 B.C. 1600년에 이르는 시대를 이집트의 혼란기로 9왕조시대나 10왕조 시대라고들 한다. 그 왕조들은 모두 단명으로 끝났고 왕이 자주 바뀌었다. 그 시대에 죽음을 넘어 삶의 즐거움이 연속되는 것으로 기원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삶과 사회에 대해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이집트의 11왕조와 12왕조를 통상 중왕조라고 한다. 이 때 이집트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 시대에 태양신 레(Le)신에 대한 숭

배는 땅과 곡물의 신인 오시리스(Osiris)신에게로 옮겨졌다.

일반인들의 사후세계가 왕의 은혜로 보장되는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장례를 제대로 치를 경우에 가능해지거나 오시리스신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모든 이집트인들은 죽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믿게 되었다. 중왕조에 와서 이집트인들은 영생의 비결이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신왕조는 B.C. 1600년 경부터 330년 정도까지를 말한다. 중왕조는 외국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진 히크소스(Hyksos)의 침입으로 종말을 맞게 되었다.

히크소스의 지배를 100년 정도 받은 후 이를 물리친 신왕조는 이집트의 18왕조라 한다. 테베의 정권인 신왕조는 공기의 신인 아문과 태양신인 레를 결합하여 신중의 신인 아문레(Amun-Re)를 창조하였다.

당시에 두 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의식이 있었다.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은 정기적인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순례자들이 몰려들었고, 상당량의 맥주와 와인이 소비되었다. 이 당시에 거르기, 끓이기를 석기를 저장 항아리로 사용하는 등 와인의 저장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한다.

신왕조 시대에는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축제는 통상 1달이나 계속되었다. 전체 왕국의 신인 아텐(Aten)의 제례를 보면 도덕적이지 않았고 상당량의 알코올이 소비되었었다. 그런데 신왕조시대에 요즈음의 음주문제 예방활동과 같은 교육을 시도한 두 사람의 현자들이 있었다. 아니(Ani)와 아메네호텝(Amehotep)이라는 두 사람의 현자들은 학

생들이 집이나 여관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것을 제재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가르쳤으며 알코올과 관련된 타락과 죽음에 대해 강론하였다.

4. 로마의 침입에도 유지된 이집트의 종교와 음주문화

B.C. 330년부터 A.D. 150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시대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는 이집트 방식의 제사와 그리스 방식의 제사가 있었다. 그렇지만 왕조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이집트는 이질적인 인구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통치자가 강력하게 통합 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이집트에 망명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엄격한 관례에서 쉽게 벗어나 어느 정도 그리스화 되었다.

또한 정복자인 로마인들이 이집트인의 종교 생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

즉, 이집트의 종교는 손상되지는 않았으며, 그 시대에 새로운 종교의 태동이 있었다. 오시리스신과 호루스신 등이 부활하여 이집트인들의 정서를 재생시켰다.

또한 구시대의 공동체적인 제사방식에서 벗어나 신과 개인과의 관계가 더욱 더 밀접해졌다.

로마시대의 이집트 종교는 많은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기독교도 도입되었다. 로마인들은 이집트의 생활양식과 언어를 인정하는 통치정책을 활용하였다.

즉, 그리스 로마시대의 음주문화 또한 3,000년 전 이집트의 음주문화와 대동소이하게 유지되었다고 한다.



맥주를 빚는 여인의 모습 - 부장품

5. 기독교의 승리-예수님께서 주류 제조를 하셨는가?

기원후 1세기 동안 이집트 내의 기독교 사회는 그다지 융성하지 않았다. 2세기 말 경에 북부 이집트의 유대인 부락에 먼저 기독교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그 시대는 기독교의 포교에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조차도 기독교가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졌고, 구원을 주고, 회생적이고, 불멸의 희망을 주는 것으로 여겼고, 수용적이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신에게 다가가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접하게 되었다. 이집트의 기독교도들은 이교도의 관점을 무덤 속의 음식과 술, 사후의 시신보존 등의 행동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기독교의 금욕

적인 요소도 받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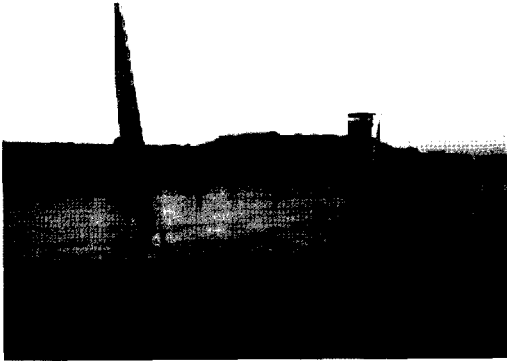
350년경에 이집트는 광범위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다. 기독교의 전파력은 이집트에서도 어김없이 힘을 발휘한 것이었다. 기독교는 이집트의 기존종교와도 유사점이 많았고, 수준 높은 종교였기 때문에 이교도로서 이집트 사회에 진입을 하는 데에도 별다른 장애도 없었다. 이집트의 기독교도들은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 대주교를 자체적으로 임명하고 자체 제작한 성경을 읽고 있다.

이집트의 기독교도들이 알코올과 음주에 대해 가진 입장은 다면적이었다. 와인(Wine)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상이한 의미로도 쓰이고 상징적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약에서는 와인을 신이 내린 선물로 믿는 것으로 적혀있다. 만취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이 뒤따랐지만 술은 당시 모든 축제에서 선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예수(Jesus)가 물을 술로 만들었다는 성경의 내용은 기적을 말하려 한 것이지만 혹자에게는 알코올 소비에 대한 권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목수 일도 하셨고, 술 제조업도 하신 것인가? 예수가 술을 만취토록 마시라고 권장한 적은 결코 없지만 술을 자신의 피로 사용한 것만은 사실인 듯 싶다. 사도 바울(Paul)도 당시에 수증환자들에게 술을 약으로 처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술이 신체와 사회에 주는 폐해를 설명하면서 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집트의 기독교회가 술에 대하여 취한 입장은 적정음주는 허용되며, 과다한 음주는 안 되고, 독주는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확인 할 수는 없었지만 이집트의 기독교도들은 과음은 막았고, 특히 독주를 마시지 않도록 권장했던 것 같다.

6. 아랍 지배기의 음주와 주조기술의 발전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이집트에 아랍인들이 침입한 것은 641년이었다. 이집트인들의 종교가 이슬람교로 전환되는 속도는 사실 느렸다. 아랍화와 이슬람화에는 수세기나 걸렸다. 아랍의 침입자 쉬트 패티미드(Shiite Fatimids)는 국민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패티미드 왕조시대(969 -1171)에 이집트에 기독교가 성행하였다.



패티미드왕조의 알하킴왕이 맥주와 와인을 버린 이집트의 첫줄 나일강

그러므로 '적정한 음주행위'를 포함한 이집트의 문화와 관습이 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적어도 알하킴왕이 금주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맥주와 와인을 나일강에 쏟아 부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만이라도 적정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알하킴왕의 금주정책은 오래가지를 못했다. 왕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고 시신조차 찾지를 못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집트의 적정 음주습관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맘룩(Mamluk) 왕조(1382-1517)의 경우는 이슬람 왕조이었는데도 이교도와도 같이 음주에 대해 허용적이었다고 한다. 오토만

(Ottoman)왕조(1516-1805)의 경우도 상이한 언어와 인종으로 구성된 지방에 따라 "적당히 마시는가? 마시지 않는가?"는 자체적으로 결정되었지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않았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면 옳을 것이다.

15세기 초반의 책자를 찾아보면, 당시 이집트인의 음주생활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날씨가 따뜻하고 습하였기 때문에 와인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때 생각해 낸 것이 와인에 당밀이나 꿀을 넣어 보관이 쉽도록 하는 기술발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맛 때문인지 맥주 소비량이 줄었다고 한다. 기술발전이 고객만족을 가져온 증세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대다수의 기독교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가 음주를 금하고 믿는다. 그래서 수도생활을 하거나 금식기간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집트의 기독교도들은 생활이 풍족했지만 과음을 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이슬람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회에서 와인과 기타 물품을 약탈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약탈자들은 흠친 와인을 마시고 길거리에 만취된 상태로 발생되곤 했다는 기록이 있다. 술과 인간간의 펠 수 없는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집트인의 종교와 알코올 소비

통상 19세기 이후의 이집트를 현대 이집트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조선시대의 순조 이후가 그 시기에 해당된다.

필자가 고대이집트로부터 현대 이집트에 이르기 까지 역사를 음주분화를 언급하면서 함께

서술하는 이유는 이집트가 대체로 외국인들에게 오랜 지배를 받아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에도 있다. 지배자로부터 분리된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중 중요한 것이 종교였으며, 종교적 삶과 알코올의 소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 당시의 왕인 모하메드 알리는 농업을 활성화하여 수출을 도모하였고, 산업화를 촉진시켰으며 군사력의 팽창시켰다.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토지소유권의 개혁을 시도한 결과 곡물, 과일, 면화, 설탕 등 농산물 작황이 크게 변화하였다. 팔라(fallah)라고 불리는 농부들은 연중 250일 동안 일을 하였다. 군대 일은 두려운 것이었고, 제조업은 싫어하였다. 여전히 군대는 외국인들이 차지하였고, 이집트는 외국인들에게 통치되게 되었다. 행정부에 이집트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으나 1세기 동안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불행히도 모하메드 알리 왕의 제해와 힘과 정치적인 기술을 전수받은 후계자가 없었다.

수에즈운하의 권한도 이권을 가지고 권력을 구축한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1881년부터 1954년 까지는 영국인들이 통치를 하였다. 영국인 크로머 총독은 산업정책을 바꾸어 농업을 1모작으로 바꾸었으며, 모국 랭카셔 지방의 생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식량생산을 줄였다. 이때 지방에 산적들이 발생하였다. 1차대전 동안에 이집트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모든 사회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1923년에 독립이 되었지만 외국인 침입자와도 같은 왕족들이 이집트를 통치하였다. 20세기 초에 근본주의적인 종교가 부활되었다.

현대 이집트의 문제는 질병, 빈곤, 인구과잉 등이었다. 1936년 이후에 이집트인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교도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결국 194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포함한 전체 아랍국가들과 전쟁이 발생하였다. 전쟁동안 재난이 계속되었고 국내도 파산상태가 되었다. 1952년 쿠데타가 발생하여 군주정치를 폐지하고 2,000년 만에 최초로 이집트인에 의한 정부가 탄생되었다.

1967년부터 이집트의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러자 종교집단들이 다시 세상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였다. 종교집단들이 정부에서 실권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외관상의 약진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인구과잉과 농업의 작황문제도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었으며, 이는 서구문화의 유입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로 곧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8. 이집트의 음복문화와 맥주를 좋아하는 이집트인

이집트에는 알코올에 대한 문헌이 많지 않다. 마리화나와 아편에 관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마리화나나 아편은 불법물질이므로 현대이집트에서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알코올뿐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집트의 음주문화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가설을 찾아냈다. 음복문화는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음주역사가 오랜 다른 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음복이 종교적 신과의 대화수단인가 조상신과의 대화수단인가의 차이라는 것이다. 그 차이는 술과 신이 만나는 횟수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 등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인간과 신과의 사이에 음주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과학자들은 청소년 음주에 대해서 주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다른 연령대의 시민들에 비해서 청소년 음주가 소위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2살 남자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8%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복이나 단순 경험을 포함할 경우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결코 작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도시의 청소년의 음주율이 농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약물에 대해 허용적인 정도는 이집트 어디를 가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1달에 4번 정도 술을 마신 경우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최근 금주를 단행한 사람들에게 대해 조사를 해보니 41.9%가 알코올이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지식과 정보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상외로 종교적인 이유로 금주한 사람은 8.8%에 불과하였다. 이제 현대 이집트인들의 경우 음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종교적 이유 보다는 건강 등 합리적인 이유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화와 서구화의 물결 속에 변화하는
이집트의 음주문화

이집트인들이 좋아하는 술은 도시권 농촌이

건 맥주라고 한다. 물론 와인과 증류주의 음주량도 도시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도시사람들은 알코올도 전보다는 더 많이 마시고 마약의 사용량도 늘리고 있다. 음주자의 12.5%는 처음 음주할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고 87.5%는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고 마셨다고 조사된 것이 그 것을 입증한다. 청소년들의 최초 음주 권유자는 학교 친구가 34%, 다른 친구가 31%, 부모가 11% 등이라고 한다. 이집트의 부모들도 축제나 특별한 날에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술에 부여된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에게서 익숙하지만 다른 서양국가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일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가 오랜 나라들의 전통과 가치체계가 시공간을 넘어 유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이 발견되어 문화연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다.

18세에서 20세까지의 학생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이집트 남자 대학생의 38.5%가 맥주를, 14.6%가 와인을, 6.7%가 위스키를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42%가 알코올을 마신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 중 31%는 아직도 계속해서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등학생이나 기술계 학생들에 대해 별도로 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생들은 이슬람교도라 하더라도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금기시하는 태도가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 결과이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의 이집트 남성은 20.1%가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비율은 학생들보다 중년남성들이 술을 덜 마신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학생들보다 술 마시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 중 음주자들은 78.7%가 맥주를 좋아하고 와인은 1.3%, 위스

키는 0.9%만이 즐겨 마신다. 직업인들이 맥주를 선호하는 비율이 학생층 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남자 대학생과 같은 또래의 노동자들 간에도 음주관련 조사결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젊은 노동자들의 경우 음주시작연령이 대학생들보다 늦다. 이는 학생층은 또래압력이 많고, 술 마케팅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사회규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16%가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만 대학생들은 2.5%만이 스스로 마시기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재미있는 자료이다.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한 노동자들 중 27%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한다. 흡연을 하는 사람이나 학벌이 높은 사람이 음주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집트도 다른 나라와 그다지 경향상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집트 도심 뒷골목 속의 노동인력

마시다 술을 끊은 사연을 조사한 결과 17.2%가 신체상이나 정신 건강 상의 이유로, 16.2%가 돈이 없어서, 13.2%가 종교적인 이유였다고 한다. 종교보다는 건강이 음주율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케 하는 정보이다. 또한 음주자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과 마약을 시작한 것이 관계가 있다고 하며, 노동자층의 93%가 음주는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여성 대학생과 남성 대학생의 음주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여학생들이 남성생들에 비해 훨씬 낮은 음주율을 보이고 흡연율도 낮고, 마약복용자도 적다. 조사결과를 보면 마약을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여학생이 16세 정도이고, 남학생은 12세로 보고되고 있다. 여학생들은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 물질 보다는 알코올을 더 많이 선호한다. 여학생의 19%가 술을 마시는 마신 적이 있다고 하였고, 그 중 38%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학생의 상당수가 12세 이전에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학력자이거나 근대화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더 빨리 술을 마시거나 배우고 있다.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술도 맥주(9.5%), 와인(1.5%), 위스키(0.2%)의 순이다.

여성이 술을 가장 먼저 배우는 매체는 역시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 알려져 있다. 물론 또래압력은 여학생들에게도 예외 없이 중요한 음주요인이 된다.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학생이 아닌 노동자들이건 이집트의 젊은이들은 알코올이나 마약에 점차 더 많이 노출되어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사회심리적인 갈등요인들을 극복할 수단으로 젊은이들이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존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시킬 것인가는 이집트 교육당국의 숙제로 등장하고 있다.

치료하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을 국립연구기관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근에는 1달러를 예방에 투자하면 평균적으

로 2.5달러 정도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경제학 분석결과도 나오고 있고 예방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예방활동을 위한 투자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9. 이집트인들의 다양한 음주 패턴

이집트인들의 음주습관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육체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음주습관을 조사해 보면 연령별로나 사회적 계층별로도 음주패턴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주에 대한 문제가 적으니 만큼 이집트에는 음주에 대한 자세한 통계자료가 없다. 관찰자들에 따르면 인구의 94%인 회교도와 6%인 기독교도들 간에 음주에 대한 사고방식, 일상생활, 신념체계 등이 유사하다고 한다. 현대 이집트는 중동지역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종들의 혼합체이다. 그 중 특별히 눈에 띄는 인종이 누비아인 흑인들이다. 다른 인종들과는 달리 이 누비아 흑인들이 전통맥주인 보자(bouzah)를 마시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누비아 흑인들이 이슬람화 되어 가면서 다른 이집트인들처럼 사고와 생활양식도 변화해 가고 있다. 물론 음주를 줄이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현대 이집트의 도심에서는 음주량이 증가

한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이집트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서양화된 중상류층의 이집트인들의 음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음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집트의 국경주변에는 시나이(Sinai), 마트로(Matrouh), 시와 오아시스(Sewa Oasis), 누비아(Nubia)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의 음주패턴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는 없었다. 그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은 셈족과 햄족에 뿌리를 둔 회교도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다른 종족들과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음주행위는 그다지 나뉘 리가 없으며, 차이가 있을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집트인들은 부모, 친구, 매스컴에서 술을 배우게 된다. 알코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현대화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술에 대해 허용적인 말을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특히 서양에서 만든 매스컴 자료들이 음주교육의 교재가 되기도 한다. 국영방송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민영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미 이집트는 모든 알코올 문제에 대비할 정책적 규제수단을 갖추고 있다.

이집트에서 마약(Narcotics)은 불법이지만 알코올은 그렇지 않다. 알코올의 이용가능성을 막는 다양한 정책이 발효 중이다. 이러한 것은 술 문제가 많은데도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규제가 적은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이집트에서도 청소년 음주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특히 규제가 강하다. 알코올 규제정책의 목표는 이미 마시는 사람들에 있지 않고, 음주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알코올의 생산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수입 주류에는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

판매시간과 장소와 연령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국민 1인당 순알코올 소비량은 1962년 0.061리터에서 1985년에 0.033리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3-4리터에서 2000년 들어 9리터를 넘고있는 것을 보면 아주 대조적이다. 물론 슬로베이나 등 동구권국가 들의 음주자들이 12-15리터를 마시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양반이지만 말이다. 이집트인의 음주량 중 맥주의 비중은 1962년 0.022리터에서 1985년 0.027로 증가하고 있다. 독주인 증류주의 소비량은 같은 기간 중에 0.031리터에서 0.002리터로 떨어졌다. 이 수치들은 다른 국가들의 음주량에 비하면 정말이지 적은 량이다.

이집트에도 일부 지방에 불법 밀주가 있고, 밀수도 있다. 문명의 시작점이라고 해서 인간 세상에 없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밀주나 밀수를 추산하기 어렵지만 전체 소비통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알코올과 관련된 건강문제나 사고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업체나 경찰에서도 관련된 자료를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일부지역에서 음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세가 되기는 어렵다.

알코올의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집트의 학계는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이다. 사람들의 알코올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각종 폐해, 건강에 대한 인식 정도, 종교적인 금기사항 등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돈 들여 연구조사를 하자는 일에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10. 이집트에서 음주문제는 개인의 문제

이집트의 전체 인구 중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로 나뉘어지는데, 그 두 종교는 모두 음주를 금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던 이슬람교도들은 와인을 만지는 것 자체를 금지했었다. 그렇지만 이집트인들은 아직도 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맥주는 마셔도 되고 와인이나 독주는 마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알코올 음료를 마시거나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음주에 대한 몇 가지 준칙이 있다. 만취했을 때의 벌칙이 다른 범죄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1959년에 통과된 법을 살펴보면 직장인이 직장에서 술에 취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 무보수로 해고된다. 1973년에는 음주운전이 발각된 경우 90일 동안 면허정지를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음주 상습범의 경우에는 더 강력히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이슬람의 법(Isramic law) 인샤레야(Shariya)는 음주를 억제하는 관행으로서 모든 이슬람교도의 양심 속에 깊게 체화되어 있다. 금주가 이집트에서는 공식적이지 않지만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형편이 다르다. 샤레야에서는 술은 한방울도 마시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음료수는 어떠한 것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심각한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음주에는 반드시 벌칙이 따르게 된다. 벌칙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샤레야는 이슬람 사회를 완전히 금주사회로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교도들은 그 규율을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이슬람 사회에 사는 이슬

람 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집 속에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 오늘날 이집트에서 샤레야를 강력하게 적용한다면 이집트인들의 음주도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이집트인들은 매우 적게 마신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음주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사실 샬레야의 원전인 코란(Koran)에는 와인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건강에 이롭다고 적혀있다. 그렇지만 이로운 점 보다는 해로운 점이 많다는 것이 이슬람의 주장이다. 코란의 앞부분에는 술을 마시고는 기도할 수도 없고 명상을 해서도 안 된다고 적혀있다. 뒷부분에는 술은 사회적 악과의 관계에 대해 적혀있다. 이슬람은 알코올을 취급하는 것은 물론 알코올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도 금지하도록 반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이슬람은 알코올이 나타내는 어떠한 의학적인 가치 조차도 부정하고 있다.

이제는 이집트에서도 알코올 음료는 종교적 의식이나 축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어떤 이집트인들이 새해 전날 망연희때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샴엘네심(Sham el-Nessim)이라고 부르는 축젯날 술을 마시기도 한다.

최근 음주가 마리화나(Hashish) 흡입에 미치는 영향이나 상호관계에 대해 이집트인들은 관심이 많다. 이집트에서 마리화나가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된 마약이기 때문이다. 마리화나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이 그다지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나 종교적인 금지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데도 흡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마리화나는 이집트에 12세기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마리화나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로운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마리화나가 라이벌인 알코올의 대체물로 역할을 하고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마리화나가 없었다면, 이집트에도 음주자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모든 사람들이 중독물질을 찾는 것은 거의 본능이란 말인가? 물론 이집트에서도 마리화나가 흡연이나 음주보다 해롭다는 연구가 나와있지만 알코올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생각이 나올 만 하지 않은가?

11. 4천년 건전음주왕국 이집트의 미래

‘고대 이집트’이건 ‘현대 이집트’이건 이집트의 음주문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수세기 동안 이집트인들은 주로 알코올 농도가 낮은 맥주를 주로 마셔왔다. 그것도 매우 적당한 양만을 마셔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우리나라나 미국, 캐나다,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 처럼 알코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의 근원은 통상 고대 이집트의 ‘곡물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알코올을 많이 음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관습은 주로 이집트인들의 종교적인 정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이집트인의 종교는 수천년 동안 성숙되어왔고 이집트인들이 술독에 빠지지 않도록 좋은 규범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나폴레옹이 피라미드 전투에서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병사 제군!, 저 피라미드 정상에서 4,000년의 세월이 제군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필자 뿐 아니라 여기까지 읽은 모든 독자들은 매우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종교적 관례를 부활시키면서, 그 힘을 이용



4000년 건전음주문화의 전통을 가진 이집트

하여 알코올의 소비에 관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현대 이집트, 우리의 음복문화와 같은 뿌리 깊은 알코올 친화적 접신수단으로 알코올을 인정하는 이집트가 "과연 그들의 건전한 음주사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청소년과 여성음주의 급성장이라는 세계사의 조류를 과연 이집트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집트의 건전음주문화의 변화과정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苦心中,常得悅心之趣. 得意時, 便生失意之悲.

고심하는 가운데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하는 취미를 얻고, 득의 만만한 때에 무득 실의의 슬픔이 생겨나느니라.

- 채근담 -

唐詩감상 / 杜甫의 詩

書堂飲旣夜復邀李尙書下馬月下賦絕句

湖水에 달이 밝고
 숲에는 맑은 바람
 말에서 내려 둘이 다시
 남은 술을 마시나니

오랫동안 버려둔 수염
 마치 그대로 鶴의 털과 같구나
 이웃집 닭이 새벽을
 알리거나 말거나

湖月林風相與清
 殘樽下馬復同傾
 久拚野鶴如雙鬢
 遮莫鄰鷄下五更